

설교노트(Sermon Note)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1)

MRI Church

(Missional-Relational-Incarnational)

(행 Acts 11:19-26, 13:1-3)

2022년 2월 6일 주일

상재웅복사

◆ 시작하는 말

☞ 시간(Kairos, 위로부터의 선물)

- 하나님의 시간표속에 탄생한 안디옥(Antioch)교회

예루살렘교회의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와서(행 11:20) 바나바를 중심으로(11:22) 안디옥교회를 세우게 되고 안디옥에서 비로서 그리스도인(Christian)이란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 (행 11:26)

☞ 안디옥교회의 지도자 바나바(Barnabas, 행 11:24)

- 1) 착한 사람 2) 성령이 충만한 사람 3) 믿음이 충만한 사람
- * 바나바사역(조연의 역할, 새가족 정착을 돕는 일)

◆ 들어가는 말

안디옥은 동서양이 만나는 문명의 충돌지역, 이윤추구가 목적 가장 분열과 다툼의 가능성이 많은 지역에 위치한 안디옥교회 하나님의 꿈(Heavenly Vision)을 이룬 교회

☞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 가능했나?

1)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행 11:23, 행 13:1)

- * Mindless시대의 선택
 - 다양성속의 일치 (Unity in Diversity)
- * 준마와 야생마의 차이
- * 야망과 비전의 차이
- * 내 뜻과 하나님 뜻의 차이

“하나님이 우리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 (아브라함 링컨)

2)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교회 (행 11:28, 행 13:2)

“주를 섬겨(헬라어-레이투기아, 예배)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3) 하늘의 비전에 순종한 교회 (행 13:2-3)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 * 3 H (Head-Heart-Hand)

“머릿속의 말씀을 가슴, 삶으로 살아내라”

◆ 나가는 말) 주님의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마 28:20, 막 16:15, 행 1:8)

교회의 형태-4 M (Museum-Maintenance-Ministry-Mission)

교회의 변화 APC(Attractional-Propositional-Colonial)에서

MRI(Missional-Relational-Incarnational)로의 전환

눈감어 아낀 영원에 투자하는 MD 하늘비전교회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 뜰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옥심쟁이 수지가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여있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 십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 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보았을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 일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 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이 이제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하는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국 선교 초창기에 한 이름없는 선교사가 고국에 있는 부모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의 과거를 발견하게 합니다. 복음이 들어와 이 땅에 있던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죽음과 절망 가운데서 살던 영혼을 살렸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은 선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주어졌던 사명은 점점 시들어 가는 중에 새로운 도구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는 분기점입니다.

복음이 이 시간 우리에게 오기까지 최초의 시작점이면서 기대를 모았던 예루살렘 교회 대신, 흩어진 자들로 구성된 이방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을 여셨던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을 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마 28:20. 막 16:15, 행 1:8). 복음의 열정과 사랑 때문에 나를 찾아 자기 심장을 미지의 땅 조선에 묻었던 한 무명 선교사의 편지처럼 오늘 여러분 각자 마음의 편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박사는 뉴저지주 메디슨에 위치한 드루대학교(Drew Univ.)의 석좌교수(기업이나 개인이 기부한 기금으로 연구 활동을 하도록 대학에서 지정한 교수)이며 처치리포트지 선정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있는 기독교 지도자 50인' 중 8위에 오른 기독교 미래학자입니다. 그는 현재 오레곤(Oregon)에 위치한 조지프스대학교(George Fox University)에서도 언어학과 미래학(Semiotics and Future Studies)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EPIC(Experiential-Participatory-Image-Connective)중심의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스위트 박사의 책 'First Century Passion for the 21st Century World'에서 언급하듯이 스위트박사는 "미래교회의 목표는 포스트모던적인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모던의 환경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경적인 교회 즉 EPIC교회(경험, 참여, 이미지, 관계)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EPIC 교회를 만들기 위해 오늘 시대의 교회가 'APC'로부터 'MRI'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의약계에서는 아스피린(A) 페나세틴(P) 카페인(C)을 해열진통제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 신장에 해를 주고 암을 유발한다고 해서 이들의 사용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는 흥미롭게도 이들 약물들의 영문 첫 글자는 교회의 낡은 3가지 모습의 머리글자 APC(Attractional, Propositional, Colonial)와 일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 Attractional(매력, 유혹적) 하나님의 마음보다 사람의 관심과 눈길을 끄는 P. Propositional(명제적)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교리에 매달리며 수동적, 소극적인 신조에 매달리는 것 C. Colonial(식민지) 수동적이고 소극적 일방적인 신앙의 모습을 강요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능력(Dunamis)보다는 프로그램(Program)을 사랑의 관계(Relationship of Love)보다는 전통적인 규범(Traditional Norm)에 목숨을 걸고 믿음의 실천보다는 믿음

의 선전에 만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를 위해 APC상태의 교회는 MRI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RI란 자기공명영상(Magnetic Resonance Imaging)이라는 '의료장비 시스템'을 말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검진하기 위한 첨단 장비인 MRI가 신체상태를 컴퓨터영상으로 보여주듯이 교회는 자신의 상황을 점검, 미래를 향해 전진하도록 MRI검사를 통해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한 MRI는 M. Missional(선교적) R. Relational(관계적) I. Incarnational(성육신적) 모델을 말합니다. 전 케냐 선교사이자 GMAN(Global Ministry Alliance for Networking)의 대표인 김정환선교사는 오랜 현장선교사로서의 경험을 통해 '선교는 지식도 학력도 아니요 관계(Relationship)'라고 정의했습니다. 관계(Relationship)라는 영문철자의 't'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급변하는 시대속에서 지구가 작은 마을로 모일수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는 예수 작은 공동체 내에서의 관계형성과 하나님사랑, 이웃사랑의 공통분모속에서 함께 더불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하나님의 프로젝트인 우리가 사는 세상속에서 '나눔'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행하는 것'은 최우선 과제입니다. 복음에 대해 '말하는 것'은 차선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차선에 더 골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행하는 것은 사랑의 사역으로 부름(Calling)받으며 사랑의 선교로 보내지고(Sending) 사랑의 삶으로의 실천적이고 관계적인 영성(Practical and Relational Spirituality)을 일구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행함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듯이 오늘날의 교회는 안주하던 자리에서 벗어나 불변하는 복음의 진리를 변하는 세상속에서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고민속에서 사랑의 선교, 사랑의 사역, 사랑의 삶을 위해 기도하며 발걸음을 내딛일 때입니다. 세상을 향한 MRI 즉 선교적인 사랑의 삶은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날까지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거룩한 소명입니다.

